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서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인천광역시서구의회



목 차

I. 연 수 개 요	-----	1
1. 목 적	-----	1
2. 기 간	-----	1
3. 방문도시 및 기관	-----	1
4. 시찰단 구성	-----	2
II. 세부 연수 일정	-----	3
III. 방문국 일반 개요	-----	4
IV. 주요 연수 내용	-----	3
○ 공공기관 방문	-----	5
○ 문화 탐방	-----	21
V. 연수 후기		26



서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 해외 선진국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우리 구의회에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전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연수개요

① 목 적

- 유럽의 선진 의회제도, 도시재생,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제도 등을 우리 구와 비교 분석하여 우수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우리 의회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의견 제시 및 접목
- 해외 연수를 통한 현지 체험으로 견문 확대와 국제화 마인드 제고

② 연수 기간 : 2018. 11. 6.~11. 12. (5박 7일)

③ 방문 국가 : 오스트리아, 독일



4 시찰단

○ 구성인원 : 총 20명 (의원 16명, 사무국 직원 4명)

연번	직 위	성 명	영 문	비 고
1	의 장	송 춘 규	SONG CHOONKYU	단장
2	부의장	최 규 술	CHOI GYUSOOL	
3	의회운영위원장	정 진 식	JUNG JINSICK	
4	기획총무위원장	김 동 익	KIM DONGIK	
5	복지도시위원장	강 남 규	KANG NAMGYU	
6	의 원	김 명 주	KIM MYUNGJOO	
7	의 원	이 의 상	LEE EUISANG	
8	의 원	이 순 학	LEE SOONHAK	
9	의 원	심 우 창	SHIM WOOSANG	
10	의 원	정 인 갑	JEONG INCOP	
11	의 원	공 정 숙	GONG JEONGSUK	
12	의 원	김 미 연	KIM MIYEON	
13	의 원	한 승 일	HAN SEUNGIL	
14	의 원	권 동 식	KWON DONGSIK	
15	의 원	최 은 순	CHOI EUNSUN	
16	의 원	김 이 경	KIM YIKYOUNG	
17	의회사무국장	조 태 신	CHO TAISIN	
18	전 문 위 원	김 의 태	KIM UITAE	
19	의정홍보팀장	인 혜 진	IN HYEJIN	
20	직 원	윤 신 혜	YUN SHINHYE	



2

세부 연수 일정

일 자 별	도 시 명	시 간	연 수 일 정	비 고
제01일 11월06일 (화)	오스트리아 비엔나	13:15 16:5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11시간35분) ○ 비엔나 공항 도착	
제02일 11월07일 (수)	오스트리아 비엔나	09:00 14:00 16:30	○ 6. Bezirk/Mariahilf - 비엔나 6구 마리아힐리프 구의회 ○ 왈츠의 도시 비엔나 ○ 비엔나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 발전소 방문	기관방문 현장시찰 기관방문
제03일 11월08일 (목)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13:00 15:00	○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잘츠카머구트 - 볼프강 호수 견학 - 목초지와 농가건물 활용 관광상품화 운영실태 시찰 ○ 잘츠부르크 - 관광상품화 운영 실태 시찰 -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관광상품 시찰 - 아름다운 간판거리 게트라이데 거리	현장시찰 현장시찰
제04일 11월09일 (금)	독일 뮌헨 독일 뮌헨	10:00 14:00	○ KinderschutzZentrum München - 뮌헨시 아동보호 전문센터 - 사회적,감정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전문기관 ○ ISAR-WÜRM-LECH IWL - 장애인 작업장 방문	기관방문 기관방문
제05일 11월10일 (토)	독일 하이델베르크	08:00 14:00	○ 뮌헨-하이델베르크로 이동 (343Km/4시간 소요) ○ 괴테의 도시 하이델베르크 - 문화관광자원 보존 실태	현장시찰
제06일 11월11일 (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09:00 11:00 13:00 19:30	○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 프랑스 및 베네룩스 3국과의 관문에 위치하여 환승 교통이 발달한 곳 ○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역 견학 - Hochst 지역 수변공간 - Westhafen 베스트하펜 ○ 뢰머 광장, 구 시청사, 대성당 견학 ○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비행시간 10시간20분)	현장시찰 현장시찰 현장시찰
제07일 11월12일 (월)	대한민국	13:5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3 방문국 일반 개요

1 독일

- 수도 : 베를린(Berlin, 약 345만명)
- 인구 : 약 8,180만명('11)
 - EU 회원국 중 가장 인구가 많음
- 면적 : 357,112km²(한반도의 1.6배)
- 언어 : 독일어
- 민족 : 게르만족 91.5%, 터키계 2.4%, 이탈리아계 등 6.1%
- 종교 : 신교(30.8%), 구교(31.5%), 이슬람(4%), 기타(33.7%)
- 정치 : 연방공화제(16개 연방주로 구성)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2 오스트리아(Republic of Austria)

- 수도 : 비엔나(Vienna, 165만명)
- 인구 : 약 823만명('12.2월)
- 면적 : 83,857km²(한반도의 2/5)
- 언어 : 독일어(영어도 사용)
- 민족 : 게르만계(92%), 슬라브계(2.7%), 터키계(1.6%), 기타(3.7%)
- 종교 : 카톨릭(74.1%), 신교(4.6%), 이슬람(4.3%), 정교 등(17.0%)
- 정치 : 연방공화제(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절충형)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4

주요 연수 내용

공공기관 방문

① 오스트리아 비엔나 6구 마리아hil프 구청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1. 7.(수) 10:00
- 장 소 : 비엔나 6구 마리아hil프 구의회 간담회실
- 면담자 : 마르쿠스 루멜하르트(Markus Rumelhart) 구청장
- 주요의제 : 비엔나시 행정 구조 및 정책에 대한 청취 및 토의

□ 비엔나 6구 브리핑 요지

- 오스트리아는 9개 연방주(federal provinces)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의원내각제에 변형된 대통령제를 가미한 연방정부로 연방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 내각 운영에는 불간섭하나, 국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며 전통적인 의원내각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고 함.
- 연방총리는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연방의 최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총리는 의회 다수당 대표가 되며 내각구성은 내각을 구성한 정당간 협력에 의해 각료를 배분하여 구성. 이 경우 내각의 권력 분점은 불가피하다.
- 오스트리아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은 상·하원이 각각 행사하나, 하원의 경우 내각 불신임



권과 국정조사권을 추가로 보유.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하원에서 재의결할 경우 상원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소멸되기에 정치적 결과로만 남게 되므로 하원의 권한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연방 주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으나 사법권은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에서만 행사. 시정부는 행정권만 인정되며, 법률 입법권은 조례입법권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 하원선거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전국을 9개주로 나눈 광역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작성한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출, 선거권은 16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임. 상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에 할당된 의석수를 각 주 의회에서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간선으로 선출. 하원의원은 183명, 상원의원은 62명으로 구성

▶ 비엔나시 정부조직

- 시 의회(Municipal Council)
 - 주민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행정감시기관
 - 주요기능 : 예산 심의·확정, 조례 등 자치입법
- 시 위원회(Municipal board, City senate)
 - 시 위원회는 시 의회에서 시 의원들에 의해 선출
 - 의회 정책 결정에 앞서 행사는 정책안 입안 및 사전 자문
 - 의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한정된 정책 결정
- 시장(The Mayor)
 - 시장은 시 의회에서 선출



- 시 행정에 있어서 집행 책임자
- ▶ 비엔나 주정부 의회(Vienna Provincial Parliament)
 - 의원수 : 100명(시의원이자, 주정부의원)
 - 임 기 : 5년,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 주정부는 주지사와 12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이들 국무위원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의회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선출.
 - 의회의 기능과 역할
 - 시 집행부 감시 및 견제
 - 시장, 부시장 및 시행정 각료(city councillors) 선출
 - 시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 의회규칙 결정 및 행정기관 권한의 설정 배분 등 입법
 -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등 처분
 - 시 행정 권한 일부의 다른 하위 기관으로의 위임 범위 결정 등

□ 토론 요지

- 시장, 부시장 등 시장단은 물론 시 행정 각료에 대한 임명권을 시의회에서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향후 선출직이 아닌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 권한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비엔나 시청·시의회의 광장은 계절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여 시청·시의회가 딱딱한 공적인 느낌보다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관방문 사진



② 비엔나 쓰레기 소각장 및 열병합 발전소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1. 7.(수) 16:30
- 면담자 : Fr. WEGER / Fr. KURZWEILE
- 주요의제 :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순환에 대한 청취 및 토의

□ 비엔나 쓰레기 소각장 브리핑 요지

- 1969년 당시 빈열난방회사(Heizbetriebe Wien)로 알려졌던 현 지역난방 빈 유한주식회사(Fernwaerme Wien GmbH)는 과거에 슈피텔라우(Spittelau)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를 소각하고 그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지역의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게 됨. 그리고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빈 시에 필요한 난방을 공급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음.

- 현재 슈피텔라우 열난방시설은 반경 2km내 빈 종합병원의 난방을 공급, 빈의 중요 사령부의 역할 뿐 아니라 총 460 메가와트(1메가와트=100만와트)의 전기를 제공하여 빈에서 2번째로 큰 난방 공급량을 담당.
- 연간 26만 톤의 열처리 생산을 감당하는 난방 공급 시설은 종합 통신망으로 각 내부가 연결되어 있으며, 연평균 6,000만 와트의 기본 열량을 생산. 더불어 가스와 기름을 열처리하는 방식으로 40억 와트의 열난방량을 생산하는 5개의 고온 보일러를 내장하고 있음.
- 이전의 배기가스 청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슈피텔라우의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개선하고 독성 및 발암성이 강한 유기 염소화합물을 제거하는 처리장과 최신 식습기 세탁 처리법 및 연기 제거기술을 1986년과 1989년도에 도입.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명한 화가이자 건축가 인프리덴스라히 훈데르트바서가 배기가스 청정역할을 하는 쓰레기 처리장 굴뚝의 외관도 새롭게 디자인 함.
- 당시 빈 시장이었던 헬무트칠크(HelmutZilk)는 훈데르트바서가 슈피텔라우 지역 열난방발전소 외 관재 설계 과제를 맡아준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함.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친구이자 환경문제 전문가인 베언



드리치(BerndLotsch)로부터 소각장 외관을 새롭게 디자인해 달라는 과제 자문 요청을 처음 들었을 때, 훈데르트바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 그는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고갈될 가능성은 없기에 자연 친화적인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콘셉트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쓰레기 처리와 그에 대한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하지만 열난방 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대신, 최신 소각 장비와 정화 기술을 구비해 6만 개의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면 도시의 공기가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과, 빈 같은 도시가 쓰레기 물량을 줄이는 데 다른 어떤 도시보다 노력해야 하며, 시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훈데르트바서는 마침내 재설계에 동의.

- 그리하여 열난방 시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능적 건물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유례없이 인상적인, 기술과 생태와 예술이 공생하는 대성공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도시 풍경의 일환에서 나아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이 유명한 관광명소된 것. 다음 사례로 등장하는 일본의 오사카 사례 또한 슈피텔라우에 대한 이러한 발상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열난방 처리장을 구축하고 있음.

- 슈피텔라우 쓰레기 처리장은 이제 빈의 자랑거리. 매년 전 세계로부터 수천 명의 방문객을 이끄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것. 외관이 재디자인된 후 슈피텔라우 시설은 기계 시설이라기보다는 마치 현대 미술관처럼 보이면서



기술과 생태 환경, 예술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음을 증명해보임. 하지만 그 안에 내장된 장치들과 기술적 지원은 예술적인 외관을 능가.

- 쓰레기 소각장은 무려 매일 1,200톤의 쓰레기를 가공처리. 운반된 쓰레기는 계량대로 옮겨져서 측정되고 약 7,000m³크기의 쓰레기 창고에 저장. 커다란 집게발 모양의 기계가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겨 넣고 그곳에서 열처리를 함. 소각된 쓰레기 찌꺼기는 정제되기 위해 물이 가득 찬 습기 정화제로 배출.
- 이 과정에서 증가된 고온의 배기가스는 열교환 처리로 들어가게 됨. 여기서 발생된 증기는 열난방과 전기생산 처리과정으로 넘겨지고 배기가스는 청정 여과과정 창고로 방출. 배기가스 청정과정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여과기에서 시작. 여과기는 배기가스의 먼지량을 99.9% 감소시킴. 청정과정을 지나 마지막으로 방출된 배기가스는 두 개의 원통형 탑 중 첫 번째 통인, 염화수소와 플루오르화수소 및 중금속이 들어 있는 세탁통으로 이동. 첫 세탁처리가 끝나면 두 번째 세탁통으로 옮겨지는데, 이 때 배기가스에 함유된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침. 첫 번째 탑에서 배출된 폐수는 두 단계를 거쳐서 폐수에 함유된 중금속을 침전시켜 걸러냄. 두 번째 통에서 세탁된 폐수는 석고 등의 물질의 침전물을 씻어내는 세제로 재활용 된다.
- 이 두 세탁통을 거친 배기가스는 고압 전기가 흐르는 유량 측정관 여과기로 이동되어 배기가스 속의 나머지 미



세면지를 분해한다. 배기가스와 폐수는 정화조로 유출되어 촉매 작용을 이용해 독극물 요소를 제거, 분해하는 정화과정으로 들어가서 질소와 물로 나뉨. 정화된 가스는 126m 높이의 굴뚝 밖으로 배출.

- 이렇게 소각처리함으로써 쓰레기는 본래 부피의 1/10로 줄어들음. 소각 처리 후 남은 분재는 더 이상 화학적으로 작용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물질로 바뀌어 매립을 하더라도 지하수나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재들이 처리장을 떠날 때도 절차를 거친다. 자기(magnetic) 기계가 분재 속에 남아 있는 잔재 부스러기 등을 분리해내는 것. 그리고 나머지 부스러기들은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물과 함께 융합되어 소금광산 건축 등에 이용되는 깨끗한 건축용 시멘트로 재탄생.
- 처리되지 않은 시의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열처리 쓰레기 소각처리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대단히 감소한다는 것과, 쓰레기에 내포된 고유의 오염물질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배기가스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쓰레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슈피텔라우 소각장 시설 동력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산출, 감당하고 빈 도시 지역의 난방을 깨끗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 혁신적인 방사물 정화 기술을 보유한 열난방 처리장은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오스트리아 자연보호법의 모든 규제를 철저히 엄수하는 동시에 최저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열난방 에너지를 제공한다. 시간당 약 4만 메가와트의 전기량과 50만 메가와트의 열난방량을 생산하여 연간 빈 시의 6,000만 가구 이상의 난방을 책임지게 된다.

- 분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매 초마다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200여 개의 장치를 추적하는 일은 24시간 주야로 실시간 감지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크리스찬 그루버(Christian Gruber)와 그의 엔지니어 팀은 슈피텔라우 내 중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분류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 쓰레기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동시에 적은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그루버 씨는 설명한다. 이 에너지를 분배, 조절하기 위해 HP의 오픈VMS(Virtual Memory System)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빈의 난방 연결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그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난방 시스템의 최고 요구 조건은 지속적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그루버 씨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격에는 환경적 효과로 볼 수 있는 대외적인 비용과 투자와 인건비 등 에너지 비용 등의 내부적 비용 등이 고려된다.
- 빈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도시 쓰레기 처리 문제와 빈에 거주하는 민간 및 상업용 열난방 공급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했지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과제에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는 이득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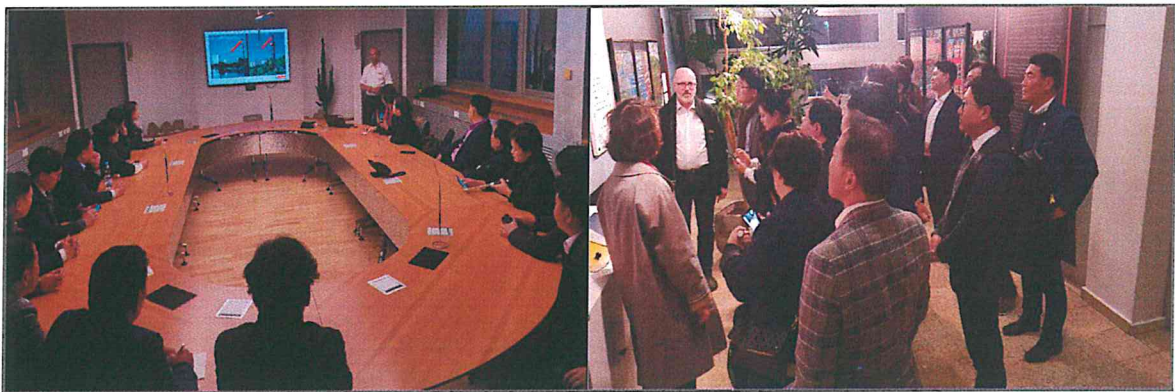


고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로 지정되었다. 특히 이 일을 진행한 회사는 유럽 굴지의 지역 난방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 토론 요지

- “처음 이곳에 소각장을 설치하려 했을 때 주민의 반대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해 달라.” 이 질문에 대해 쓰레기 소각장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왜 반대합니까?”라는 반문을 한다고 한다.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혐오시설이라 해서 반대부터 해놓고 보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엔나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확보 방안 검토

○ 기관방문 사진



③ 뮌헨 아동보호전문센터 (KinderschutzZentrum München)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1. 9.(금) 10:00
- 면담자 : Fr. WEGER / Fr. KURZWEILE
- 주요의제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 방향에 대한 청취 및 토의



□ 아동보호 전문센터 브리핑 요지

○ 뮌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주요역할:

- 부모-자녀 관계 형성
- 가족과 전문가 네트워크
- 예방 및 개입
- 재가 및 시설보호, 방문
- 개인 / 집단 치료
- 전화상담 및 면대면 상담
- 피해자 및 가해자 개입

- 인력구성:

- 총 8명 종사자
- 남성 4명, 여성 4명
- 지원인력 1명
- 인턴 1명

- 전공분야

- 심리학 & 사회사업학
- 자격: 가족치료, 행동치료, 트라우마치료 등

- 질적 기준

- 개입/ 수퍼비전
- 고유한 체크리스트 사용
- 사례보고 관리
- 최소한 1번의 아동수요 충족
- 협업: 부모와 청소년과 함께 함.

- 아동학대 실태

- 아동방임: 60%

▷직접적 개입(64%) -가족(부모, 아동, 조부모 등)

▷간접적 개입(36%) - 전문가, 기타

- 클라이언트 & 주요 내용



- 다양한 클라이언트: 저소득층, 다양한 가족문제 등
- 다양한 문제 소유: 아동을 학대할 위기에 있는 가족 등
- 독일 아동보호체계의 3핵심(Pillars)
 - 법원
 - 공무원/청소년청, 정부아동복지기관
 - NGO 및 민간 아동복지기관
 - 3기관은 다른 태도, 사정도구를 가지고 있어 의견조율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음.
- 법적 근거
 - 발달, 교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될 권리, 학대예방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
 - 부모의 권리 및 의무: 아동양육 및 교육의 책임.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
- 이념적 기초
 - 아동보호 + 부모지원 + 가족기능강화 = 아동보호
 - ▷ 부모는 자녀의 최고를 원한다고 가정
 - ▷ 학대를 막는 것은 시간이 걸림.
 - ▷ 1번의 개입이 아니라 가족과 장시간 협업함.
- “No Blame” 접근
 -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위험함.
 - 체계적 접근: 사람을 그들의 생애일대기와 환경에 의거해서 이해함.
 - 사람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음.
 - confrontation & contact
 - 양립불가능성을 받아들임.
 - 부모상담의 주안점: 강한 부모가 강한 아동을 양육한다.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무료 상담(재원: DKB, 뮌헨, Bavaria주정부, 후원)
- 위기시 상담 및 개입 제공
- 상담서비스: 필요한 경우 매일 익명으로 가능
- 저녁과 주말 서비스도 제공
- 개인 상담 및 필요한 경우 치료도 제공
- 가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음.
- 전문상담과 다른 전문가, 아동복지제도와 공무원 등과의 협업

○ 독일 아동보호체계

- 최신 기술

- 독일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가장 우선적 책임을 보이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의 경향: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장애없이 전문적 지원으로 부모와 접촉하도록 함.
- 목표: 고비용의 시설보호는 피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 선택
- 미디어의 영향: 권위는 너무 많이 개입하거나 적게 개입해서는 안됨.
- 통제와 접촉 간의 균형을 유지
- 특별 상담 및 훈련 제공

- 독일 아동학대 관련 법: 8a/b SGB VIII

- 전문가가 아동의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를 수집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부모가 지원을 받을 것을 동의하면 이러한 지원이 적합한지 검토함(주의 후견인의 역할)
- 뮌헨의 특별 접촉은 모든 청소년 복지제도에서 활용되어야 함.



- 농촌지역은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고 전문가의 배경이 다양하여 성학대가 발생할 때 개입이 불완전함.
- 뮌헨 계약의 주요 이슈
 - Four-Eyes 원칙: 티과 외부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 과정 평가
 - 가능하다면 부모와 자녀 개입
 -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가 개입
- 아동위기에 대한 과정 평가(Process-related evaluation)
 - 아동위험의 수준
 - 문제의 수용
 - 문제에 대한 동의

○ 기관방문 사진



4 뮌헨 장애인 작업장(ISAR-WÜRM-LECH IWL)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1. 9.(금) 14:00
- 주요의제 :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방안에 대한 청취 및 토의



□ 뮌헨 작업장 브리핑 요지

- 정신 장애 및 복합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뮌헨 및 뮌헨 근교에 4곳의 작업장이 있다.
-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장애 경중 정도는 다양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구별되어 각기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견학하게 된 곳은 1층의 작업장으로 자동차 부품 중 하나를 재활용하여 닦고 포장하는 작업 팀, 여러 종류의 나사못을 사진을 보고 분류하는 팀, 물통의 뚜껑을 분리하는 팀 등 한 공간에서 여러 팀들에 의해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유명 회사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140명의 직원과 55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으며 작업장마다 전문분야가 있고 생산관리, 목공, 금속 가공, 조립 및 포장, 전기, 위생포장, 제본, 정원 및 조경 관리, 건물 청소, 세탁, 요식업 등이다.
- 2층에서는 컴퓨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3층에서는 하청 받은 디지털 카메라 설명서, 보증서 정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왔다고 한다. 그 옆에는 케이블 안에 전선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팀에서는 포크, 나이프, 스푼 등을 냅킨에 싸서 병원 식당에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보통 작업을 하는 소그룹은 15명에서 17명 이하로 구성되어 주당 3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3층에는 점심 식사 후 쉴 수 있는 공간과 작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여러 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 토론 요지

- 독일의 장애인들은 작업장에서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일한지 20년이 지난 장애인 중 몸이 힘들어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지면 기타 직장과 달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월급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차에 따라 중간 평가에 의해 지급되며, 같은 일이라도 작업량의 양적 결과물이 아니라 장애 경중에 따라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판단하여 지급된다고 한다. 일을 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연금과 본인의 월급을 합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주어진 일이 일찍 끝나면 남은 시간에 작업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다가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단체와 연계되어 1년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일반직장으로 취업이 되고 있었다.

○ 기관방문 사진



☐ 문화 탐방

① 오스트리아 비엔나 쾨브른 궁전

- 쾨브른 궁전은 1696년 터키군의 침략으로 파괴되어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을 레오폴드 1세(Leopold I :1640~1705, 재위 1658~1705)가 1696년부터 1702년까지 6년 동안 원래의 궁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대적인 공사로 지금의 궁전을 만들었다. 5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3층 대리석 건물인 쾨브른 궁전의 외관은 바로크 양식이고, 내부는 로코코 양식으로 모두 1,441개의 방이 있는데, 건물 외관은 물론 궁전 뒤편의 넓은 정원까지 당시 유럽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루이 14세가 지은 파리 베르사유 궁전을 많이 모방했다.
- 쾨브른 궁전에 들어서면 정문 양쪽에 마치 오벨리스크처럼 높이 솟은 석주 위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독수리 상은 합스부르크가의 문양이다. 그리고 궁전의 외벽이 크림색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것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가장 좋아하던 황금색으로서 ‘마리아 테레사 옐로우(Yellow)’라고도 한다.
- 1805년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정복한 후에도 궁전으로 사용했던 쾨브른 궁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박물관이 되어서 수많은 방 중 45개만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쾨브른 궁전의 입장료는 11.5유로인데,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한글 안내서도 나눠준다. 그리고 최근 삼성그룹의 협찬으로 한국어 안내방송



을 하는 헤드셋도 나눠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는 반증일 것이다.

- 가장 멀리 높은 언덕 위에는 대리석으로 골조공사만 하고 중단된 3층짜리 건물을 글로리에떼(Gloriete; 개선문)라고 한다. 글로리에떼는 1775년 오스트리아가 프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그리스신전의 양식을 본뜬 개선문으로서 파르테레(Great Parterre)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조각상들이 기하학적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열을 지어 배치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높은 언덕위에 짓다만 글로리에떼에서 바라보는 쾨부르 궁전의 모습과 비엔나 시내 전경이 매우 아름답다.



②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마르크주, 오버외스터라이히주, 잘츠부르크주 등 3개 주에 걸쳐 있는 지방으로 할슈타트, 장크트 볼프강, 장크트 길젠 등이 대표적인 마을이다. 그 중에서 잘츠카머구트의 진주라고 불리는 할슈타트는 호수와 마을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hal이라는 뜻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전 세계 최초의 소금 광산으로 유명한 곳이다.

-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이 1년 내내 방문할 수 있도록 스키장, 요트, 하이킹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었다.
- 우리 구도 축제 때만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 사계절 내내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③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오스트리아의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중세시대의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이다. 소금을 뜻하는 잘츠(Salz)와 성을 가리키는 부르크(Burg)가 합쳐진 이름을 가진 잘츠부르크는 로마시대에 생긴 도시로 가톨릭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소금성이라는 이름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소금 산지로 유명했으



며, 지금도 전국으로 소금을 공급하고 있다.

-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17세까지 살았던 도시로, 모차르트 생가를 모차르트 기념관으로 사용하여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악보, 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음. 모차르트의 기념관이 있는 곳만큼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 초콜릿, 화장품 등 모차르트의 얼굴이 담긴 각종 기념품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거리고 꼽히는 게트라이데 거리는 건물마다 가예의 특징을 살려서 만든 철제 수공 간판들이 달려있는데, 현대적인 상점들도 오래된 전통을 따라 이 간판들을 달고 있었다.
-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생가가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이 모이지만 그보다 유명한 건 게트라이데 거리의 간판 때문이다. 상호와 문양이 새겨진 아담한 크기의 간판을 보며 우리 구의 무분별한 색색깔의 간판을 특색있는 간판으로 조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독일 하이델베르크

-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라인 강의 지류, 네카르 강변의 대학도시·관광도시이다. 1386년에 창설되었다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으며, 아름다운 고성(古城)과 함께 독일 유수의 관광도시이다.
- 1952년 이후로 유럽 주둔 미군 총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다. 또 16세기와 17세기 초에 건설되었다가 17세기 말 프랑스군에 의해 파괴된 고성으로도 유명하다. 이성의 지하에는 하이델베르크 튠(Heidelberg Tun)이라는 약 5만 8080갤런 규모의 거대한 술통이 있다. 그밖에 1701~1703년 건립된 시청사와 이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철학자의 길(Philosophenweg)'이라 불리는 오솔길 등이 있다.
- 하이델베르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하이델베르크 시내의 아름다운 전경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영화, 문화 콘텐츠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또한 크다 하겠다.



5 독일 프랑크푸르트

- 뱅크푸르트라고 불리우는 프랑크푸르트는 금융과 산업의 도시로 화려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 반면 뢰머 광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세시대 건물이 즐비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옛것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버무려진 느낌을 주는 도시이다.



5 연수 후기

-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많은 국가를 둘러보기 보다는 역사와 도심재생 및 디자인에 집중하여 오스트리아와 독일 2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지침으로 삼고자 했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시민들의 역사관과 자신들의 과거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독일에서는 기



대했던 감각적인 디자인과 도심재생 사례를 자세히 관찰
해볼 수 있었다.

- 그리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점이었다.
- 또한 이 나라들에서 볼 수 있었던 도심재생의 키워드는 ‘복합’이었다. 한 공간에 하나의 기능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두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전략이었다. 여기에 트렌드를 주도하는 유럽의 디자인이 공공부문에도 적용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인 것처럼 통일성과 심미성을 가지고 있었다.
- 관광객들이 유럽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연수였던만큼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들을 잘 정리하여 우리 구에 점진적으로 적용해 많은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가는 서구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 이번 연수를 통해 느끼고 배운 점들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이 되는 지침이자 서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가 노력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끝.

